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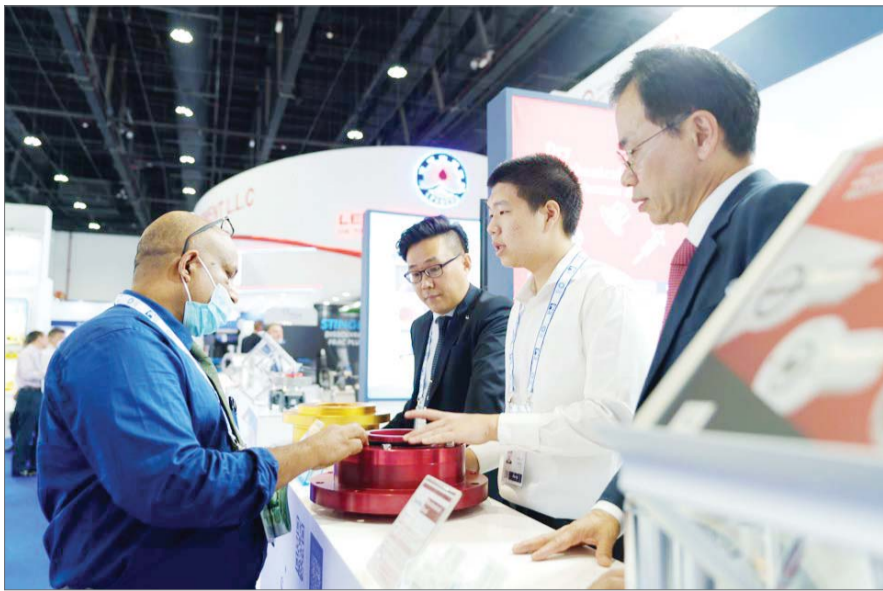
중동 수출길 뚫는다... 석유·가스 관련 中企 30곳 현지 파견

중기중앙회 '프리미엄 한국관'
UAE 아부다비 석유가스展 참여
경쟁력 갖춘 우수기업 대폭 늘려
현지 업체 초청 등 네트워킹 지원

석유·가스 관련 기계, 부품, 엔지니어링 중소기업들이 중동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로 몰려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월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ADNEC)에서 열린 'UAE 아부다비 석유가스전시회(ADIPEC 2022)'에 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과 협업체 국내 우수 제조업체 30개사가 참여한 '프리미엄 한국관'을 파견했다고 6일 밝혔다.

ADIPEC은 세계 최대 규모 석유가스 전문 전시회로 중기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컨소시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이어 올해도 '프리미엄 한국관'을 조성·운영했다. 특히 올해엔 참여기업의 수출성과 및 만족도 제고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해 이달 3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린 'ADIPEC(2022)'에서 한국 기업 관계자가 현지 바이어와 상담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위해 지원기업 규모와 지원내용 등을 대폭 늘렸다.

한국관 참여기업들은 석유가스 시추 단계부터 정제, 가공 처리, 운송까지 각 과정에서 필요한 기계, 부품, 엔지니어링 기술을 보유한 중소제조업체들로 U

AE 등 중동지역 수출경험 및 각종 글로벌 인증 보유, 현지 벤더 등록 등 수출 경쟁력을 두루 갖춘 우수기업으로 구성했다.

기업들의 평균 수출액은 약 500만 달러, 평균 매출액은 125억원 수준이다.

중기중앙회는 한국관 참여기업에 대한 해외 바이어의 정보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QR코드 스캔을 통해 제품별 웹카달로그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전시기간에 맞춰 병행한 '온라인 전시관'에서도 참여기업의 제품기술 정보와 담당자 연락처 등을 홍보했다.

특히, 전시회 전 참여기업 대상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초청하기 어려운 중동 석유가스 국영기업, 설계·조달·시공(EPC) 업체, 1차 벤더 등을 초청해 네트워킹을 지원했다.

이번 전시회 참여기업들은 프리미엄 한국관을 통해 과거보다 더 많은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하이테크 제조설비를 갖춘 플랜지 제조업체인 삼양금속공업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ARAMCO), UAE의 국영석유회사(ADNOC), 그리고 카타르의 페트로리움(PETROLEUM)과 카타르가스(QATARGAS)의 벤더들

록 업체인 NPCC사와 78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펌프 제조업체 청우하이드로는 UAE의 ADNOC에서 발주한 해수펌프 대체 프로젝트에 참여해 70만 달러 상당 거래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카자흐스탄의 펌프 에너지(Pump Energy)사와 에이전트 계약도 체결했다.

화재 자동 진압용 제품 생산업체 ㈜수는 이번 전시회에서 제품을 시연하고 현장에서 UAE에서 2만 달러 가량의 수출 계약을 처음 성사시켰다.

중기중앙회 전혜숙 중기중앙회 무역촉진부장은 "ADIPEC 전시회는 중동 시장을 넘어 세계 최대 규모의 구매력 있는 전시회로 전 세계 수많은 바이어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석유가스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중소제조업체들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수출에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에이스침대연구소 신뢰성·공신력 국제 인정

국제공인 시험기관 숙련도 '합격'
첨단 연구로 최적 수면조건 조성

에이스침대 부설 연구소인 에이스침대 침대공학연구소가 KOLAS(한국인정기구)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숙련도 평가에 참가해 합격했다.

6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침대공학연구소는 1992년 침대의 과학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설립한 침대 전문 연구소다. 침대전문가들이 첨단 연구설비를 통해 최적의 수면 조건을 조성해 고객들에게 '좋은 잠'을 제공할 수 있는 침대를 연구하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대한민국의 침대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에이스침대공학연구소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2006년에는 국가기술표준인증으로부터 침대업계에서 유일



에이스침대의 국제공인 침대공학연구소 전경.

하게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KOLAS 인정 기관만 수행할 수 있는 숙련도 평가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진행했던 측정법과 측정 결과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전 세계 공통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

다. 이번 숙련도 평가는 15년 이상 비교·능력 테스트를 진행하고 맞춤형 인증 참조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숙련도 테스트 제공 업체인 독일의 DRRRI 주관했다.

이번 국제공인 시험기관 숙련도 평가는 전 세계 해외 우수 기관과 함께 참여해 우수한 숙련도를 인정받음으로써 에이스침대공학연구소의 KOLAS 인정기관 유지는 물론 신뢰성과 공신력을 재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에이스침대공학연구소 관계자는 "더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하고 개발해 온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이번 인증 취득을 계기로 고객들에게 '좋은 잠'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여경협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기재부 장관상

'통계의 날' 통계발전부문 수상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운영하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제28회 통계의 날'을 기념해 통계발전부문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6일 여경협에 따르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19년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후 국가승인통계인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 등을 통해 통계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 수상은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여성기업법' 제7조에 의거해 매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기업 대상으로 일반, 재무 및 고용현황, 여성기업인의 특성 및 애로사항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한다.

이정환 여경협회장 겸 지원센터 이사장(사진)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국가승인통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통계발전부문에 크게 기여한 바가 인정된 만큼 앞으로도 '여성기업 실태조사'의 통계품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매진하겠다"며 "이러한 통계를 활용해 실효성 있는 여성기업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초소형·초고화질 모빌리티 캠 선보여

팅크웨어 '아이나비 스포츠 MC10'
UHD 4K 해상도, 154도 시야각에
6축 전자식 흔들림 보정 센서 탑재

팅크웨어가 초고화질 모빌리티 캠 '아이나비 스포츠 MC10(사진)'를 내놨다.

6일 팅크웨어에 따르면 이 제품은 초소형 크기에 고화질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촬영을 지원한다. UHD 4K 해상도로 선명한 영상을 기록한다. 특히 154도의 넓은 시야각을 확보해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며 고객들은 6축 전자식 흔들림 보정 센서(Advanced EIS)를 통해 움직임이 많은 순간에도 영상을 매끄럽게 촬영할 수 있다.

외부 환경 사용도 최적화됐다. 옷 또는 가방에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클립 케이스, 바이크 헬멧 표면에 장착하는 프레임 케이스, 수상 레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수케이스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프로텍션 케이블도 함께 포함돼 유선 충전시에도 방수·방진 IP 65 등급을 적용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편의를 고려한 설계도 눈에 띈다. 가장 먼저 KC 인증을 마친 1100mAh 배터리가 내장돼 있어 최대 180분동안 녹화할 수 있으며, USB-C 타입 케이블을 통해 보조배터리를 연결하면 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상시 녹화 모드를 작동할 수 있다.

가격은 21만9000원. /김승호 기자

LX홀딩스, ESG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정순원 사외이사

ESG경영 추진 체계 구축 등 박차
내년 하반기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LX홀딩스가 지난 8월 ESG 위원회를 발족한데 이어 초대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ESG 경영에 더욱 적극 나서고 있다.

내년 하반기엔 계열사의 ESG 경영이 두루 담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1호'를 발간한다.

6일 LX홀딩스에 따르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정순원 사외이사를 ESG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정순원 사외이사는 경제 전문가로 기업 경영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고 산업계를 잘 파악하고 있는 인사로 ESG 경

영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천리 대표를 지냈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5월 LX홀딩스의 출범때부터 사외이사를 맡아왔다.

LX홀딩스는 지난 8월 ESG 경영 및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정순원 위원장을 포함해 이시준, 강대형 사외이사와 노진서 대표 등 총 4인으로 구성돼 있다.

LX홀딩스는 ESG 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그룹 차원의 일관적이고 통합된 ESG 방향성 수립과 전략 체계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LX홀딩스는 지난 8월부터 계열사와 공동으로 회사별 ESG 경영환경을 정밀히 진단하고, ESG 경영 체계를 정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 지주사인 LX홀딩스는 각 계열사의 ESG 비전과 우수 성과를 담은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내년 하반기에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LX홀딩스 관계자는 "ESG 경영을 내재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그룹 차원의 ESG 방향성 제시와 유기적인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판단"이라며 "대내외적으로 ESG 강화 흐름에 발 맞추어 보다 체계적인 ESG 경영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